



중급유운송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거부

1년간 유예기간 내년 4월5일부터 시행

내년 4월 5일부터 해양환경에 취약한 중급유를 운송하는 일부 단일선체유조선은 국내항 입항이 거부되거나 운항이 금지된다.

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가 개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이행사항 중 중급유(비중 0.9이상)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 가운데 정부가 판단해 운항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한 선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내년 4월5일부터 입항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내용을 보면, 협약에서는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 5000톤 이상의 단일 선체유조선은 지난 5월부터 운항이 금지됐으나 불완전한 이중선체선박과 비중 0.9-0.945 원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은 각 국가가 판단해 당해 선박의 선령 25년까지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기본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외국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국적선의 운항을 금지해야하지만 국내 유류수급 및 즉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선령 25년 이하 선박에 한해 1년간 입항거부 및 운항금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선령 25년을 초과해 운항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4월5일부터 외국적 선박은 입항이 거부되고 국적선은 운항이 금지된다.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한 입항거부 및 운항금지 1년 유예조치는 해양환경보호를 최대한 중시하되 우리나라 유류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사와 정유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인전략'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항 선원회관 착공

11억원 들여 8월까지 230평 규모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원의 편의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광양컨테이너부두에 선원회관을 건립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3월31일 광양항 선원회관 건립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양항 선원회관은 오는 8월말까지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30평(1층) 규모로 건립되며 인터넷 서비스 시설을 갖춘 휴게실과 24시간 편의점, 체육오락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민경태 여수해양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선원회관 착공을 시작으로 항만지원시설 확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러한 지원인프라가 구축되면 항만물류사업의 진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항만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광양항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의 취약한 항만물류 지원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항만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미비된 복합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800평 규모의 복합운송업체 지원시설로 물류창고와 사무실을 연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증가추세에 있는 고부가가치 냉동·냉장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1500평 규모의 냉동·냉장창고를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초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